자주하는 질문(FAQ)

-원숭이 두창 관련-

2022. 7. 6.

중앙방역대책본부

목 차

Ⅰ 질병(원숭이두창)의 특성 ····· 1

Ⅱ 역학적 특성 ····· 2

1. 발생국가 ····· 2

2. 감염 및 전파경로 ····· 4

Ⅲ 진단검사 ····· 8

Ⅳ 격리 및 접촉자 관리 ····· 12

Ⅴ 예방 및 치료 ····· 14

Ⅵ 의심환자 대응 ····· 17

Ⅰ 질병(원숭이두창)의 특성

Q1. 원숭이두창은 어떤 질병인가요?

○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

Q2.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었을 때 주요증상은 무엇인가요?

○ 발열, 발진, 두통, 근육통, 허리통증, 무기력감, 림프절병증(비대, 염증 등)이 있습니다.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~3일 이내 시작하며 얼굴, 손바닥, 발바닥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, 간혹 입, 생식기 또는 안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한편 이러한 발진 등 임상증상은 약 2~4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.

Q3. 치명률은 어느정도 인가요?

○ 일반적으로는 1~10%*로 알려져 있으나 WHO에 따르면 최근에는 3~6%로 보고되고 있으며, 아프리카를 제외한 22년 발생국가 중 현재까지 사망자**는 없습니다.

* 풍토병 지역 치명률: 서아프리카 1%, 중앙 아프리카 10~11% 가량

** 원숭이두창으로 인한 사망여부 조사 중인 1례 있음(브라질)

Q4. 원숭이두창에 감염되어도 안심할 수 있나요?

○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며 2-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다만, 신생아, 어린이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II 역학적 특성

1 발생국가

Q1.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으로 알려진 국가는 어디인가요?

○ 나이지리아, 코트디부아르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콩코민주공화국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*에서 2022년 5월 이전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.

* 가나 : 동물에서만 확인
* 베냉, 남수단 : 유입사례만 확인
* 카메룬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콩고민주공화국, 가봉, 코트디부아르, 라이베리아, 나이지리아, 콩고, 시에라리온

Q2. 최근 원숭이두창 주요 발생국가는 어디인가요?

○ '22. 5. 7일 영국에서 1건의 원숭이두창 유입사례(나이지리아) 보고 이후 유럽, 북미, 이스라엘 등 다수 국가(5.7일 이후 신규 환자 발생국 기준)*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

* **(총 51개국, 6.23일 기준)** 영국, 포르투갈, 스페인, 스웨덴, 이탈리아, 벨기에,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, 스위스, 덴마크, 오스트리아, 체코, 슬로베니아, 핀란드, 아일랜드, 몰타, 헝가리, 노르웨이, 코소보, 라트비아, 그리스, 아이슬란드, 폴란드, 루마니아, 조지아, 룩셈브루크, 세르비아, 미국, 캐나다, 아르헨티나, 멕시코, 볼리비아, 브라질, 바하마, 파라과이, 아이티, 우루과이, 베네수엘라, 칠레, 호주, 이스라엘, 아랍에미리트, 이란, 레바논, 파키스탄, 싱가포르, 한국, 모로코, 우간다, 수단

Q3. 아프리카에 발생하던 감염병이 갑자기 왜 세계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나요?

○ 현재 발생 국가별 첫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발생국가별 정확한 유입경로가 확인되면 영국, 포르투갈, 스페인, 벨기에 등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, 캐나다까지 짧은 기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Q4. 국내 유입 사례가 있나요?

○ 2022년 6월 27일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유입사례는 1건입니다.

Q5. 현재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할 상황인가요?

○ 원숭이두창에 대한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. 다만 국외 발생 양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Q6. 원숭이두창이 국내 유입시 코로나19처럼 대규모 유행을 할까요?

○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대규모 유행을 보인 곳은 없습니다.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습니다. 현재로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(전염병의 대유행)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.

2 감염 및 전파경로

Q1. 원숭이두창의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〉사람, 사람〉사람, 감염된 환경〉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. 현재까지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한편, 유증상 감염환자와 밀접접촉 시 전파가 가능합니다. 또한,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코로나처럼 단순 접촉으로 감염되는 정도는 아니며,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도 가능하나 흔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-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(타액, 소변, 구토물 등)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 감염
-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, 침구류,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, 피부 상처 등 접촉 감염
- 감염된 원숭이,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 감염

Q2. 원숭이두창은 동물-사람간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감염된 동물(설치류, 영장류 등), 사체(육류 또는 혈액 포함)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합니다.

Q3. 원숭이두창은 사람-사람간 전파경로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은 유증상 기간(보통 2~4주) 동안 전파력이 있습니다. 감염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(타액, 소변, 구토물)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성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Q4. 원숭이두창은 임산부-태아/신생아 간 감염이 가능한가요?

○ 감염된 임산부의 태반을 통하여 태아에게 감염시킬 수 있으며, 분만 중 산모와의 초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신생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Q5. 잠복기가 5~21일이라고 하는데, 무증상 기간동안 감염이 가능한가요?

○ 무증상 기간 중 전파가능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, 전세계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Q6. 의사환자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잠복기 동안 격리를 해야하나요?

○ 의심환자로 신고된 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원숭이두창 관련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.

Q7.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고위험 접촉자는 최초 노출일로부터 21일간 격리되며, 중위험 접촉자의 경우 능동감시, 저위험 접촉자는 수동감시를 시행합니다.

위험도	원칙	관리방식
고위험	보호구 미착용 직접 접촉 또는 고위험 환경 노출	① 모니터링 기간 : 21일 ② 격리 : 유 ③ 방식 : 능동감시 ④ 노출 후 예방접종: 유
중위험	보호구 미착용, 감염성물질, 비말 또는 잠재적 에어로졸에 노출	① 모니터링 기간 : 21일 ② 격리 : 격리 무, 고위험집단과 생활 하는직업군*은 근무제한 권고 ③ 방식 : 능동감시 ④ 노출 후 예방접종: 유
저위험	보호구 착용 후 신체 또는 비말 노출	① 모니터링 기간 : 21일 ② 격리 : 무 ③ 방식 : 수동감시
	신체 접촉없고 비말 노출 가능성 거의 없음	

* 면역저하자, 임신부,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와 생활하는 직업군

Q8. 원숭이두창이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?

○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,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, 흔하지는 않습니다.

- 세계보건기구(WHO)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에 따르면,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, 감염된 동물이나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 주된 전파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.

- 다만,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특정 임상적 환경(삽관·발관, 수술·시술 등 처치)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
Q9. 원숭이두창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에게 권고되는 준수사항이 있나요?

○ 손 씻기,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발생국가 여행 시 발진 등 유증상자와의 직간접 접촉 삼가, 야생동물 및 반려동물 접촉 시 개인보호구 칙용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.

III 진단검사

Q1.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가요?

○ 그렇습니다, 현재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가능합니다.

Q2. 일반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인을 위한 검사방법과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방식은 유전자검출검사로 검사실에서 검체 접수 후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

Q3.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은 어떤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가 진행되나요?

○ 원숭이두창에 사용되는 검체는 피부병변액, 피부병변조직, 가피, 구인두도말과 혈액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-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병변액, 피부병변조직, 가피, 혈액 등을 이용하며, 피부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도말, 혈액 등을 이용합니다.

Q4. 의료기관 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시 검사의뢰 및 검체는 어떻게 이송하나요?

○ 우선,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발생 시,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후 해당 보건소에서 사례확인 후 의사환자로 분류 시, 시·도별 지정 입원치료 병상 이송, 검체 채취, 검사의뢰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.

Q5.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종류 및 검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는 유전자검출검사법(Real-time PCR)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 진단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신고 시, 보건소에서 사례확인 후 의사환자로 분류 → 시·도별 지정 입원치료 병상 이송 → 검체 채취 → 검사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.

Q6. 잠복기에 진단검사를 하면 원숭이두창 감염 확인이 가능한가요?

○ 원숭이두창은 감염병 특성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, 감염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Q7. 의료기관에서의 검체 채취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○ 원숭이두창 검체종류는 피부병변액, 피부병변조직, 가피, 구인두도말과 혈액 등이 있습니다.

1. 피부병변이 있는 시기에는 피부병변액, 피부병변조직, 가피, 혈액을 채취하며, 이중 피부병변 검체는 필수검체에 해당됩니다.
   - 채취방법은 환부 2곳 및 주변을 소독, 건조 후 드라이 스왑으로 채취하며 각각의 스왑을 각각 개별 무균용기 또는 바이러스 수송배지에 수집합니다.
     또한, 가피는 환부 2곳 및 주변을 소독, 건조 후 26G 주사침 등을 이용하여 탈피하고 채취하여 VTM 또는 무균용기에 수집합니다.

2. 피부병변이 없는 전구기에는 구인두도말 및 혈액 등을 채취합니다. 구인두도말은 전구기 환자 구인두에서 VTM에 도말물 1개를 채취하고, 혈액은 EDTA가 처리된 튜브에 5 ml 이상 채취합니다.

Q8. 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시 보호장비 착용 범위가 궁금합니다.

○ 검체 채취 시 보호장비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
- 권고하는 개인보호구는 개인보호구 4종으로 호흡기 보호를 위해 일회용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, 눈 보호를 위해 고글, 전신 보호를 위해 일회용 장갑 및 방수성 긴팔가운이 필수적입니다.
- 필요시, PAPR, 일회용 전신보호복, 방수성 긴팔가운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Q9. 원숭이두창 검체 용기 별도 지원 여부 및 허용되는 검체용기 범위가 궁금합니다.

○ 원숭이두창 검체 용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시판되는 VTM 또는 무균용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

○ 해당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에 해당되며,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에 따라 검체 포장 방법을 준수하시어 3중 포장 용기에 검체를 포장하시면 됩니다.

Q10. 원숭이두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있나요?

○ 현재, 원숭이두창 검사는 질병관리청에서만 진단검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.

○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가 원숭이두창이 의심이 된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, 이후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.

- 보건소에서 사례확인 후 방역당국(시도, 센터 등)이 의사환자로 분류 시, 시·도별 지정 입원치료 병상 이송, 검체 채취, 검사의뢰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.

Q11. 해외여행력 없이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검사받을 수 있나요?

○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이 원숭이두창을 의심하여 관할보건소로 신고를 할 경우, 기초 역학조사 후 의사환자로 판단된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Q12. 해외여행 중 원숭이두창 감염 위험이 있는 동물과 접촉력이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검사가 가능한가요?

○ 입국 시 관련내용을 건강상태질문서에 내용을 기재하시고, 검역관에게 알릴 수 있으며, 기초역학조사 후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에 해당할 경우 1인실 격리시설로 이송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Ⅳ 격리 및 접촉자 관리

Q1.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'원숭이두창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판('22.6.21)'에 따라 감염원 증상, 개인보호구 착용, 체류시간, 체류장소 환경에 따라 접촉자(고위험군, 중위험군, 저위험군)를 분류하고 있습니다.

○ 고위험군: 개인보호구 미착용, 직접 접촉 또는 고위험 환경 노출
중위험군: 보호구 미착용, 감염성물질 비말 또는 잠재적 에어로졸 노출
저위험군: 보호구 착용 후 신체 또는 비말 노출, 신체 접촉없고 비말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음

Q2. 의사환자가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결과 음성이어도 잠복기 동안 격리를 해야 하나요?

○ 의심환자로 신고된 경우, 원숭이두창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원숭이두창 관련 격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입국 후 2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증상 모니터링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재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

Q3. 항공기내 원숭이두창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○ 항공기내 확진환자의 전후좌우, 대각선 1개 좌석 승객을 21일 동안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1개좌석 이상 3열 이내 승객은 21일 동안 수동감시를 실시합니다.

Q4. 원숭이두창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입니다. 검사를 받을 있나요?

○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였어도 원숭이두창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 대상자가 아니며,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위험도에 따라 격리, 능동감시 또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.

Q5.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○ 입국전 21일 이내 증상이 있었으나, 입국 당시 건강상태질문서를 “증상 없음”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「검역법」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- 이에 모든 해외입국자는 의심증상 여부 등에 대한 검역관의 검역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
Ⅴ 예방 및 치료

Q1. 원숭이두창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?

○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, 손씻기,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.

Q2. 원숭이두창에 대한 예방 백신이 있나요?

○ 2세대 두창 백신은 국내 식약처를 통해 승인된 백신으로써, 두창 뿐만 아니라 원숭이두창에도 85%의 교차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○ 3세대 두창 백신은 두창과 원숭이 두창 모두에 대해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.
- 현재, 원숭이 두창 대응을 위한 **비복제 두창 백신(3세대) 도입을 진행 중**에 있음

Q3.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(해외여행 예정자 등)

□ 원숭이 두창 백신 예방접종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*에게 제한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.

* 확진자와의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을 의미함

○ 현재 일반 국민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, 해외에서도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 중심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Q4. 원숭이두창 확진자 관련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포위접종을 계획하고 있나요?

□ 포위접종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질병 확산을 막는 전략입니다.

○ 원숭이두창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전략으로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
○ 예방접종을 시행할 고위험군은 확진자와의 접촉 강도가 중위험 이상인 밀접접촉자와 확진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.

Q5. 예방접종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게 되나요?

○ 원숭이두창 예방접종은 확진된 환자와 접촉을 통해 노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,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강도가 중위험 이상(피부, 비말, 공기전파의 가능성이 있는)인 경우 실시하게 됩니다.

○ 접종시기는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접종하며, 접촉 후 4일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접촉자로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접종할 계획이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.

○ 접종장소는 접촉자와 가까운 시도 전담병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, 백신은 현재 비축 중인 2세대 백신이고, 접종시행은 국방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접종 교육을 받은 **군 의료진이 실시**하게 됩니다.

Q6. 원숭이두창에 대한 치료제가 있나요?

○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실시합니다.

○ 현재, 해외에서 보고된 두창 관련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 3종(테코비리마트, 브린시도포비어, 시도포비어)이 있고, 두창백신 접종 후 부작용 치료제로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(VIGIV)이 있습니다.

- 국내에서는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을 활용할 수 있으며,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를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입니다.

Q7. 원숭이두창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?

○ 대부분 경미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2-4주 후 완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증적인 증상 완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신생아, 어린이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○ 또한, 의료진은 환자의 중증도·사망 위험도를 고려하여, 치료제를 투여하여 기대되는 임상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치료와 관련해서는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.

Q8.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?

○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대한감염학회와 협력하여 **원숭이두창 치료 가이드라인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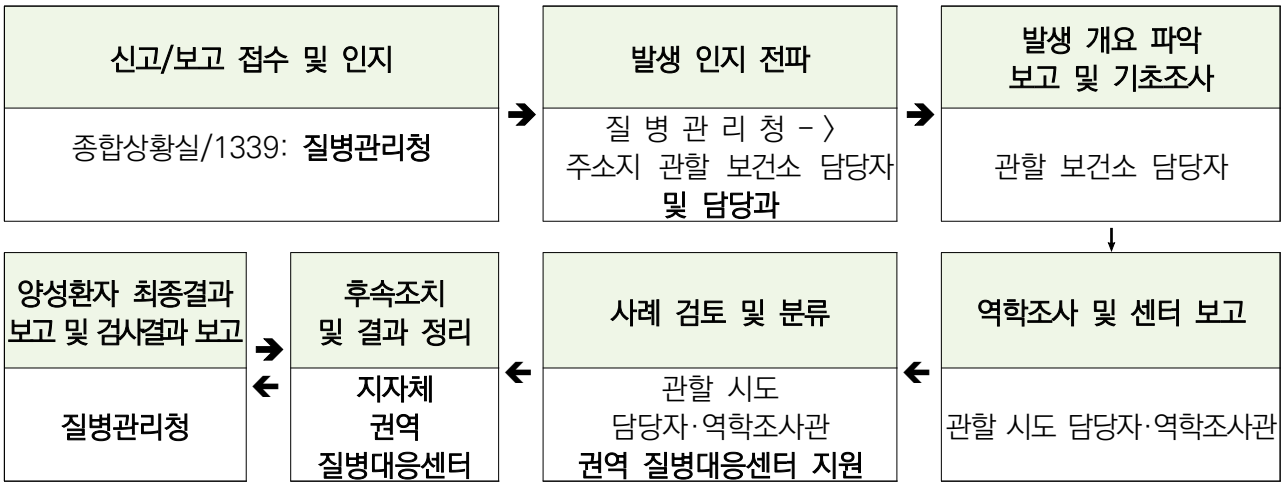
VI 의심환자 대응

Q1.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을 1339로 개인이 문의하는 경우 어떻게 안내하나요?

○ 1339는 의심사례를 접수한 경우,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의심사례를 전파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응하도록 안내합니다. 이후 담당과에 관련내용 공유합니다.

* 담당부서 직접 문의전화는 가급적 1339에서 先 안내 조치, 필요시 담당과에서 추가답변 등 지원

○ 대응체계



○ 원숭이두창 및 다른 발진 질환과의 비교

	원숭이두창 (Monkeypox)	수두 (Varicella)	대상포진 (Herpes zoster)	단순포진 (Herpes simplex)	홍역 (Measles)
발진 사진	 * 미국 CDC	 	 	 	
발진 특징	•머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팔다리 쪽으로 진행 •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발진 **•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** •손·발바닥 침범	•머리를 포함하여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 •경계가 불명확한 수포성 발진 •발진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음 •손·발바닥 침범 드묾	•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으며,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•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	•국소적으로 피부,점막 (눈, 입술 등)모두 침범 가능 •주로 입술, 구강, 인두, 음부 쪽 발생 •수포, 궤양 동반 가능	•붉은 반구진성 발진 •얼굴~귀뒤, 이후 몸통 중앙 쪽으로 진행 •탈피 가능
임상양상	•발열+두통+근육통부터 시작 •고열 가능 •발열 1~4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	•두통+근육통부터 시작 •보통은 미열 (38.8도 미만) •발열 0~2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	•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음 (감각신경 침범) •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	•병변 부위 통증, 가려움증 유발	•발열+기침+결막염 •이런 전구증상 수일 발생 후 발진 발생
림프절 비대	**•주로 목, 겨드랑이, 서혜부** **•단단한 압통**	•드묾	•드묾	•드묾	•드묾